

한 눈에 보는 전염병 발병 지역과 전파 경로

질병의 지도

산드라 험펠 지음, 김아람 옮김

디프테리아, 독감, 나병, 홍역, 사스, 천연두, 결핵... 앞에 열거한 질병의 공통점은? 바로 공기로 전파된다는 사실이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또는 물건이나 다른 표면에 접촉해 옮겨진다.



페스트가 중세 유럽을 휩쓸던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묘사한 페테르 브뤼겔의 '죽음의 승리' <사람의 무늬 제공>

그렇다면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동반하는 것도 유사하다.

다시금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는 한때의 꿈처럼 멀어져갔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야는 없다.

흑사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전염병을 지도로 다룬 책 '질병의 지도'는 의학과 과학, 역사를 아우른다. 지도를 매개로 전파와 발병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책과 차별된다. 영국의 의학 저널리스트이자 건강, 사회 전문 분야 작가인 산드라 험펠이 저자다.

저자가 질병과 관련한 지도를 매개로 삼은 것은 전파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활용한 첫 사례는 1854년 영국의 의사 존 스노였다. 당시 런던 소호와 관련한 콜레라 발병을 조사했는데 600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는 허룻밤에 2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 콜레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전무했다. 콜레라는 인류를 가장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다. 스노는 오염된 식수를 통해 콜레라가 확산된다고 믿었다. 의료 당국은 그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았고 스노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사망자를 조사해 지도에 표기했다. 그 결과 사망자 대다수가 브로드가의 우물 펌프 주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연두는 인류가 박멸한 유일한 질병이다. 역사학자들은 16세기 신대륙 정복자들이 아즈텍과 잉카 왕국을 무너뜨렸던 것은 천연두와 홍역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천연두가 맹위를 떨친 것과 아울러 의학이 발전했다. 예방접종은 인체가 항체를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영국 출신 에드워드제너가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인류 고난의 역사와 함께한 질병은 발진티푸스였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최초 대규모 전염병인 '아테네 전염

병'이 발진티푸스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오늘날은 드물게 발병하지만 내전으로 열악한 아프리카 같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다.

책에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다. 15세기 말 매독이 유럽에 퍼지자 저마다 다른 나라에 책임소재를 돌렸다는 것이다. 17세기 노예선이 카리브 해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인간 '화물' 다수가 이질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18세기 뉴게이트 감옥에서는 "교수대에서 탈출하는 대가로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기로" 죄수들이 약속했다.

저자는 "각각의 지도 뒤에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끈질긴 노력도 있었다. 이런 지식은 질병과 맞서 싸우도록 계속 도와 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무늬·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결으면 보이는 도시, 서울=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안적 여행법을 찾는 이들을 위해 서울의 7개 산책로를 다룬 에세이다. 건축사인 저자 이종욱은 무벽이족을 자처하며 서울의 구석 구석을 드로잉으로 그려내 도시 공간의 인문적 가치를 일깨운다. 인문적 도시 걷기를 통해 '나의 도시는 과연 어떤 곳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뜨인돌·1만7000원>

▲상아의 문으로=구병모 작가가 계간 '문학과 사회'에 연재한 소설을 묶어낸 장편소설. 책 제목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등에 등장하는 '상아로 만든 문'과 '뿔로 만든 문'에서 빌려왔다.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이 진정한 내가 누군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찰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비폭력의 힘=젠더이론의 거장이자 비교문학·비평이론의 대가인 주디스 버틀러의 신작. 저자가 대학과 연구단체 등에서 한 강연을 묶은 책으로 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토대로 비폭력이 갖는 의미를 고찰했다. 저자는 폭력인 가해진 자리를 성찰하면서 정치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연결하는 힘으로 비폭력을 상징한다.

<문학동네·2만원>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마음이 다친 줄 모르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 같은 상처로 혼자 아파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 모든 걸 지적하는 부모 앞에서 완벽해지려 애썼던 아이는 자라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다 문제를 일으킨다. 어린 시절 나를 만나 어떤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더퀘스트·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눈이 아이='수박 수영장' '당근 유치원'을 만들어낸 작가 안병달의 작품으로 함박눈이 쏟아진 후 하얗게 변하는 겨울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그림책이다. 주인공은 눈 덮인 들뜬에 홀로 있던 눈덩이를 만나고, 눈덩이에게 팔다리와 얼굴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눈덩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창비·1만5000원>

▲눈길표=눈길표는 언제나 눈에 띄는 아이였다. 이곳에서도, 저 곳에서도 마침표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눈길표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이고 싶었다. 어느 날, 속상하고 주눅 들어서

임도 뺨긋 못하는 눈길표의 눈앞에 물음표가 나타나 끊임없이 질문한다. 베스트셀러 작가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은 자기만의 특별함을 찾는 과정을 문장 부호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천개의바람·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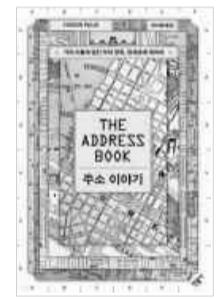
▲꼭갈을까?=동그라미 돌이 눈을 바라보며 다정한 대화를 나눈다. 겉모습이 닮은 둘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사과의 맛부터 가고 싶은 곳, 좋아하는 계절, 장래 희망까지 알풍달풍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책은 좋아하는 친구를 알아 가는 과정을 간결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가족, 친구 등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담았다. <사계절출판사·1만5000원>

주소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

주소 이야기

디어드라 마스크 지음, 연아람 옮김

내년이면 창사 70주년을 맞는 광주일보사의 주소는 오랫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였다. 전일발달에 자리했던 회사가 이사를 갈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주소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이었다. 광주에서, '금남로 1가 1번지'라는 주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꽤 크다. 이처럼 주소는 우편물을 정확하게 배송하는 수단 등 기능적이고, 행정적인 장치 그 이상일 수 있다.



작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며 '뉴욕 타임즈', '가디언' 등에 글을 쓰고 있는 디어드라 마스크가 펴낸 '주소 이야기'는 주소와 거리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생각에 흥미를 느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하고

탐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주소의 기원과 역사를 탐색하고 주소 체계와 거리 이름에 담긴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를 탐구한 저자는 도로명이 정체성과 부에 대한 문제이며 인종문제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은 '권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책은 또 도로에 이름을 짓고 번호를 붙이는 계몽사업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를 개혁한 혁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저자는 미국 전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과 일본, 인도, 아이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전 세계의 사례를 취재하고 인터뷰해 주소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해방 이후 66년 동안 일본식 구획 주소 체계를 사용하던 2011년 서양식 체계를 도입, 도로에 이름을 부치고 집마다 번호를 매기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도입한 한국의 사례도 소개돼 있다. 더불어 구글 플러스코드 등 디지털 주소의 등장으로 변해 갈 주소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지난 몇년간 뉴욕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의 40% 이

상이 도로명 변경에 관한 것이었을 만큼, 주소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지정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인접한 토지도 서로 다른 행정 구역에 편입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진다.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 회사는 건물 주소를 '콜럼버스 서클 15번지'에서 '센트럴파크 웨스트 1번지'로 바꾸어 줄 것을 뉴욕시에 요구했다. 트럼프 회사는 이 아파트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소"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트럼프는 주소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주소가 지니는 상징적 가치 때문에 무엇을 기념하고 기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 가치관이 깊게 배어 있고 지정과 개정 등에는 다양한 논의와 논쟁이 따른다. 나치 시대의 거리 이름을 통해 과거사를 극복하는 독일 베를린이나, 미국의 인종문제를 고발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마틴 루터 킹 거리에 대한 이야기 등이 그 사례다.

<민음사·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